



## LNG선 신조선가 2주 연속 상승 & 미포 수주 러쉬

### 코멘터리

#### LNG선 신조선가 상승

① LNG선 신조선가가 지난주에 이어 또 \$1m 올라 \$184m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80m 후반대에서 계약되기에 추가적인 클락슨의 선가 인상 반영이 있을 것이고, 2019년 한국 조선업이 LNG선 신조선가 인상을 시도 중이어서, 더 올라갈 길이 한참 남아있습니다. 또한 수에즈막스 탱커 신조선가도 2주 연속 올라 \$61.5m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에 클락슨 신조선가지수 상승 재개를 기대해 봅니다.

#### LNG 견조

② 기다리던 러시아 Artic LNG2의 쇠빙LNG선 14척이 로컬 Zvezda로 곧 발주됩니다. 이에 한국 조선업의 실주를 우려할 수 있지만, 러시아 신생 조선사가 단독 건조할 수 없는 바, 곧 한국 BIG3와의 기술협약 및 실질적 수주 및 잔고 증가가 있을 것입니다. 곧 한국 수주 소식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③ 독일 Uniper 용선으로 MOL이 대우조선해양에 LNG선 2척 + 옵션 2척을 계약했습니다. 2호선은 일본 JERA와 용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12월의 수주 러쉬 중 하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탱커 등 발주 수주 러쉬: 현대미포조선!

지지난주 그리스 Pistiolis의 Central Group과 MR 탱커 4척 수주소식을 알린 미포는 지난주에도 2곳 6척의 MR 탱커 수주 소식을 전합니다.

④ 현대미포조선은 일본 Meiji로부터 MR 4척을 수주했습니다. 오일메이저 등 큰 용선처 기반 발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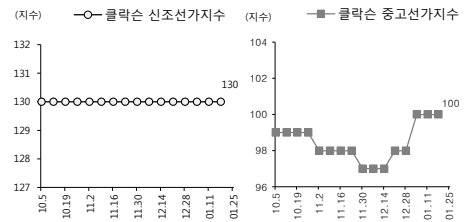
⑤ ExxonMobil로부터도 MR 2척을 수주합니다. 일본 조선사들은 Tier-III 스펙에서 미포와 경합이 안되었다고 전합니다.

⑥ 대우조선해양도 Sinokor로부터 4척, Oman Shipping으로부터 2척 + 2척을 수주하며 2019년을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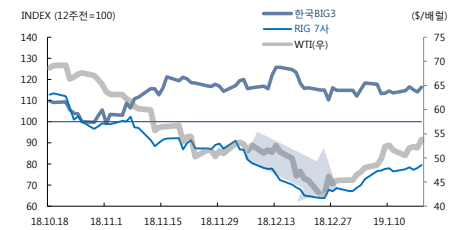
LNG 외에, 2019년은 탱커 입니다!

### 대표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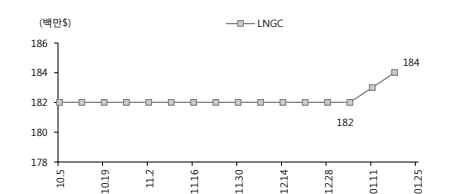
#### 지수는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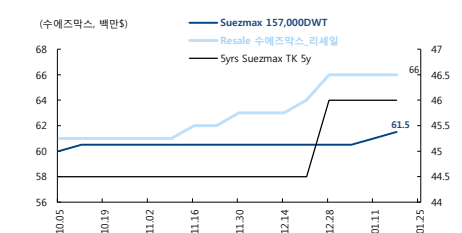
#### 유가, RIG PLAYER, BIG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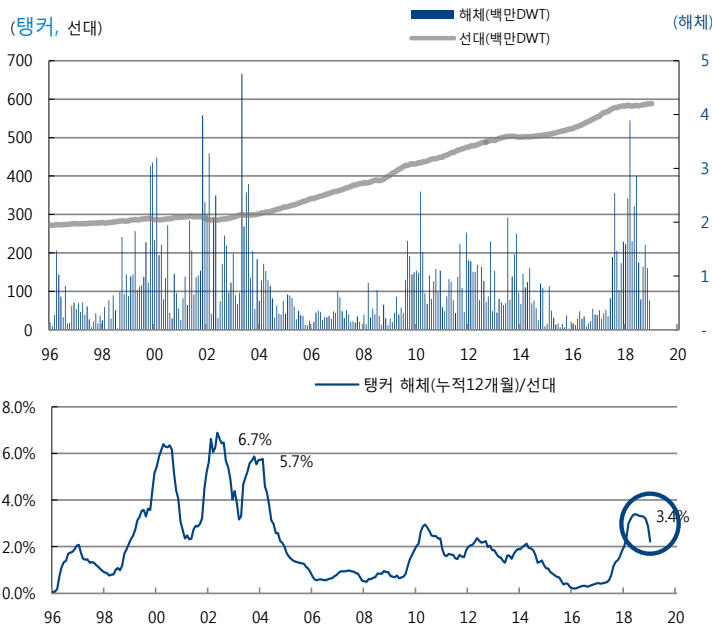
#### LNG선 신조선가 2주 연속 \$1m 상승한 \$184m



#### 수에즈막스 탱커도 2주 연속 상승: 리세일 > 신조



#### ▶ 2018년 탱커 해체 증가로, 2019년 탱커 신조 시장 기대: 1) 불황, 2) IMO 2020 선제 대응



### 주시 뉴스

※ 상세 내용은 아래 해당 섹션 참조

#### 신조선가 상승

- ▲ LNG선 신조선가, 2주 연속 상승해, \$184m
- ▲ 수에즈막스 탱커 신조선가도, 2주 연속 올라 \$61.5m

#### LNG선 신조

- ▲ 러시아 Novatek, 로컬 Zvezda에 쇠빙LNG선 14척 발주: 한국 JV 후속 발표 기대
- △ 독일 Uniper 용선 기반으로 MOL 대우조선해양에 LNG 2+2척(2018년)

#### 년초 수주들: 특히미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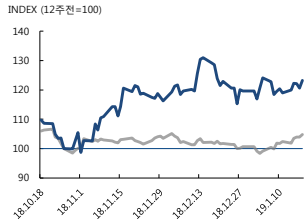
- ▲ 일본 Meiji, 현대미포조선에 MR 4척 발주
- ▲ ExxonMobil, 현대미포조선에 MR 2척 계약
- ▲ 대우조선해양, Sinokor와 Oman Shipping으로부터 6척+2척 수주

# 비 중공업 Fla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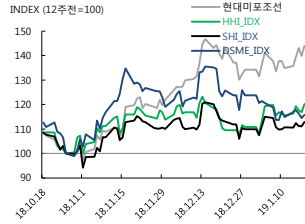


## Peer Group 등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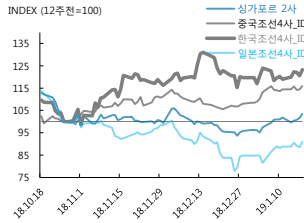
### ▶ 한국 주식시장 vs. 조선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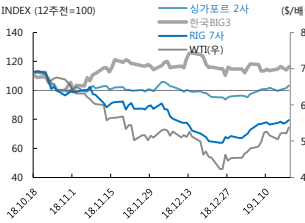
### ▶ 한국 조선4사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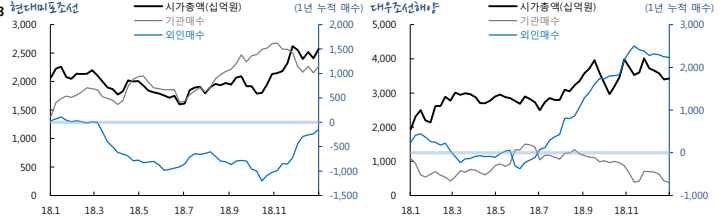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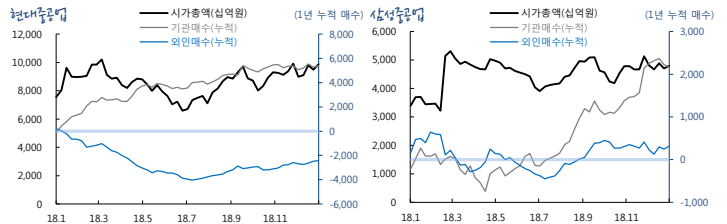
### ▶ 한/중/일/싱 조선주 추가 비교



### ▶ 유가 → RIG 선주, 싱가포르 Offshore 제작사, 한국 BIG3



## 조선 수급



## 글로벌 피어그룹 추가 흐름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추가	1Y	3Y
지수	WTI		4.3%	14.0%	24.6%		-15%	74%
	CRB INDEX		2.3%	3.4%	-7.9%		-7%	11%
	Capital Link Container Index		-1.9%	5.4%	10.0%		22%	-38%
<b>조선사</b>								
한국조선	현대중공업	8,018	4.1%	4.9%	8.6%		9%	82%
	삼성중공업	4,444	2.0%	1.3%	3.7%		-1%	-1%
	대우조선해양	2,999	0.8%	7.7%	4.5%		77%	-30%
	현대미포조선	1,765	6.8%	2.2%	4.3%		24%	0%
	한진중공업	252	10.8%	5.8%	1.6%		-67%	-62%
싱가포르	KEPPEL	8,677	0.6%	4.7%	7.5%		-24%	125%
	SEMBCORP MARINE	2,794	2.5%	5.7%	3.9%		-27%	7%
중국조선	CSSC	2,266	3.5%	6.4%	15.0%		-42%	-48%
	CSIC	14,133	-0.9%	6.0%	1.6%		-28%	-44%
	CSSC OMEC	1,786	1.8%	3.5%	8.3%		-62%	-64%
	YANGZHIJIANG	3,231	3.8%	8.9%	6.3%		-18%	86%
일본조선	NAMURA SB	326	5.8%	6.6%	9.3%		-42%	-48%
	MITSUI ES	1,412	5.3%	5.1%	2.0%		-40%	-26%
	KAWASAKI HI	4,490	2.9%	3.6%	6.8%		-41%	-29%
	SUMITOMO HI	4,089	8.1%	0.3%	2.3%		-26%	52%
대만조선	CSBC CORP TAIWAN	400	3.5%	4.1%	10.2%		-26%	-29%
<b>엔진 / 부품</b>								
엔진	MAN	16,112	-0.1%	-0.1%	-0.5%		-6%	-1%
	WARTSILA	11,633	1.0%	1.4%	-0.8%		-22%	13%
한국엔진	HSD엔진	126	2.5%	-1.1%	11.7%		95%	235%
	STX엔진	175	2.4%	-8.2%	-13.0%		-15%	32%
	STX중공업	69	1.3%	-40.0%	-72.2%		-86%	-94%
기자재	한국카본	269	1.9%	-6.9%	4.1%		9%	10%
	동성화인텍	188	0.1%	-6.5%	-4.5%		19%	90%
	세진중공업	163	-1.0%	-8.3%	-7.6%		5%	30%
	삼강엔엔티	103	12.8%	3.5%	34.3%		12%	50%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추가	1Y	3Y	
<b>기름들</b>									
RIG	TRANSOCEAN	5,312	7.2%	27.0%	-33.0%		-24%	-10%	
	SEADRILL	2,070	-5.4%	2.6%	-59.5%		-40%	-29%	
	DIAMOND DRILLING	2,371	2.9%	22.9%	-39.5%		-33%	-53%	
	NOBLE	1,471	2.1%	17.1%	-49.6%		-33%	-53%	
	ENSCO	3,200	6.2%	25.8%	-46.8%		-33%	-52%	
	ODFJELL SE-A SHS	335	-2.0%	4.3%	-1.3%		-5%	14%	
	ROWAN COMPANIES INC	2,037	15.6%	41.4%	-35.9%		-24%	3%	
IOC+	OCEAN RIG UOW INC - Dryship	2,806	0.0%	0.0%	-17.7%		-3%	-100%	
EQUINOX	ExxonMobil	348,527	1.8%	3.1%	-10.3%		-16%	-5%	
	Shell	272,235	0.0%	2.9%	-4.7%		-6%	70%	
	BP	144,512	0.4%	4.1%	-6.2%		3%	48%	
	Total	167,925	2.1%	2.0%	-9.7%		1%	22%	
	Chevron	222,848	1.6%	6.1%	-2.9%		-13%	37%	
	ENI	68,344	3.1%	4.7%	-6.5%		-1%	13%	
	Equinor	88,189	1.1%	1.9%	-12.4%		6%	76%	
ENG.	SBM	3,674	1.4%	14.1%	-8.7%		-7%	26%	
FEED.	TechnipFMC	13,494	6.5%	26.1%	-20.0%		-28%	-1%	
	SAIPEM	5,485	6.4%	17.7%	-19.0%		0%	-24%	
	NOV	16,935	4.6%	16.2%	-27.3%		-20%	-2%	
	MODEC INC	1,745	2.8%	6.8%	-32.1%		-17%	86%	
	WORLEY PARSONS	4,066	1.5%	19.5%	-23.0%		1%	281%	
	<b>해운</b>								
	해운	MAERSK DC Equity	28,327	2.2%	4.6%	7.4%		-19%	7%
SHIP FINANCE INTL LTD		1,686	3.8%	4.7%	10.1%		-24%	-6%	
CLARKSON PLC		1,093	-0.8%	17.7%	-9.7%		-25%	17%	
EURONAV NV		1,816	1.9%	2.7%	13.2%		-7%	-33%	
GOLDEN OCEAN GROUP LTD		1,311	0.4%	6.7%	24.0%		-20%	71%	
FRONTLINE LTD		873	3.4%	-0.9%	-9.7%		17%	-47%	
NORC. AMERICAN TANNERS LTD		288	3.3%	-1.4%	-6.5%		-18%	-84%	
KINOT OFFSHORE PARTNERS LP		729	1.1%	3.3%	11.6%		-13%	58%	
LNG		HOEGH LNG HOLDINGS LTD	410	-1.7%	5.8%	-5.6%		-35%	-54%
		GASLOG LTD	1,523	0.1%	7.1%	-9.2%		-11%	157%
	GASLOG PARTNERS LP	1,079	0.7%	6.0%	14.0%		-13%	90%	
	GOLAR LNG PARTNERS LP	908	5.0%	28.1%	-1.7%		-40%	5%	
	LPG	BW Offshore	1,365	2.3%	23.5%	31.3%		7%	83%
		DORIAN LPG LTD	403	-3.9%	3.6%	20.6%		-17%	-44%
		EXMAR NV	425	1.8%	5.5%	18.5%		-2%	-25%



## ASP & 실적관련(국내외)

### ▲ LNG선과 수에즈막스 탱커 2주 연속 상승

- 신조선가는 벌크의 케이프와 파나마막스, 탱커의 수에즈막스아프라막스, LNG선이 상승했지만, 신조선가지수는 아직 130p 제자리
- LNG선 신조선가는 2주 연속 \$1m씩 올라, \$184m을 기록
- 수에즈막스 탱커도 2주 연속 \$0.5m씩 상승해 \$61.5m으로 발표
- ☞ LNG선 신조선가가 작년 하반기의 상승세를 뒤늦게 반영 중입니다.
- ☞ 올해 한국 BIG3는 LNG선 선가 인상을 도모하고 있기에, 상반기 중 성사 후, 클락슨 발표 LNG선 신조선가와 신조선가 지수 상승을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 LNG

### ▲ 러시아 Novatek, 로컬 Zvezda에 해빙LNG선 14척 발주: 한국 JV 후속 발표 기대

- 러시아 가스 자이언트 Novatek은 국내 Zvezda에 해빙 LNG선 14척(44.5억\$)을 발주: 적당 \$316m~\$318m
- 2017년부터 준비해오던 15척보다는 1척이 작아짐: 인도는 2022년~2023년
- 또한 이를 용선발주할 선주에 대한 입찰이 진행 중: 러시아 Sovcomflot이 상당 부분을 가져갈 것으로 보임
- Artic LNG2는 3개의 Train에서 19.8MTPA를 생산/수출할 예정
- ☞ 한국 조선사들이 노리던 프로젝트라 의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 ☞ 그러나 러시아 신생 조선사가 자력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 클락슨 수주 통계로는 러시아 완공이 잡힐 수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건조작업은 한국에서 건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 또한 이를 BIG3 중 어디가 담당하게 될지도, 끝까지 지켜보아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다만, 어느 한곳이 이를 수주해가더라도, 나머지 조선사들은 BIG3에서 BIG2.5의 수주/영업환경을 맞이하게 되기에 모두에게 수혜입니다.

### △ 독일 Uniper 용선 기반으로 MOL 대우조선해양에 LNG 2+2척(2018년)

- 12월에 독일 트레이더 Uniper는 일본 MOL과 180k-CBM의 20년 장기용선 계약을 체결했고
- MOL측은 대우조선해양과 LNG선 2척과 옵션 2척을 확정했다고 밝힘
- 12월에는 MOL이 2호선도 계약했었는지는 불투명했고, 옵션 여부도 알려지지 않았음
- 2호선은 일본, 중국, 인도 등 여러 곳과 용선계약을 협의 중
- 특히, 일본 JEERA(일본 유틸리티사 Chubu Electric Power와 Tepco의 JV)와의 용선이 유력해보임
- ☞ 이번 계약은 대우조선해양의 12월 알려지지 않은 LNG선 수주로 짐작됩니다.

##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

### ▼ Clarksons 신규 수주 업데이트

#### ② Daewoo (DSME) → Unknown, TK(300k) 4척

- 아래의 Sinokor 수주 뉴스로 추정

#### ② Hyundai Mipo → Central Shpg Monaco, PTK(50k) 4척

- (01월3주) ▲ 현대미포조선, 그리스 Pistiolis로부터 MR 4척 수주
- 그리스 Pistiolis의 Central Group은 현대미포조선에 MR탱커 4척 발주
- 이번 발주는 옵션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 인도는 1~2호선이 2020년1월, 3~4호선은 2Q20
- 신조선가는 Extras를 포함해 \$38m으로 양호!
- 동 선주는, 현대중공업 그룹에 지난 5년간 \$800m을 건조
- : 현대미포-비나신이 Pistiolis의 MR 10척을 건조했고,
- : 비나신의 잔고가 차서, 2017년말에는 현대미포조선에 발주했고
- : 또한 작년말에는 현대삼호중공업에 수에즈막스 2+2척을 발주



## ▼ 신조 발주설(뉴스 단계)

### ▲ 일본 Meiji, 현대미포조선에 MR 4척 발주

일본 Meiji는 선대 확충을 위해서라며 현대미포조선에 MR 탱커 4척(2020년 인도물)을 발주  
 통상 Meiji는 오일 메이저를 비롯한 블루칩들과의 용선을 기반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이번 건도 용선 기반 발주일 것으로 보임  
 IMO Tier-III 선박의 신조선가는 \$38m으로 알려짐  
 51척(벌크 21척, PCTC 7척 외에 탱커)을 운영하는 Meiji는 작년에 2010년 건조 46k-DWT MR 2척을 매각했고,  
 이번 계약 외에도 115k-DWT 4척을 올해 인도 받을 예정이며,  
 일본 Onomichi에도 Tier-II LR1탱커와 MR탱커를 2020년 인도물을 발주 함  
 아래의 ExxonMobil과 합쳐서, 연초 미포는 6척의 MR을 수주하면서 시작합니다.

### ▲ ExxonMobil, 현대미포조선에 MR 2척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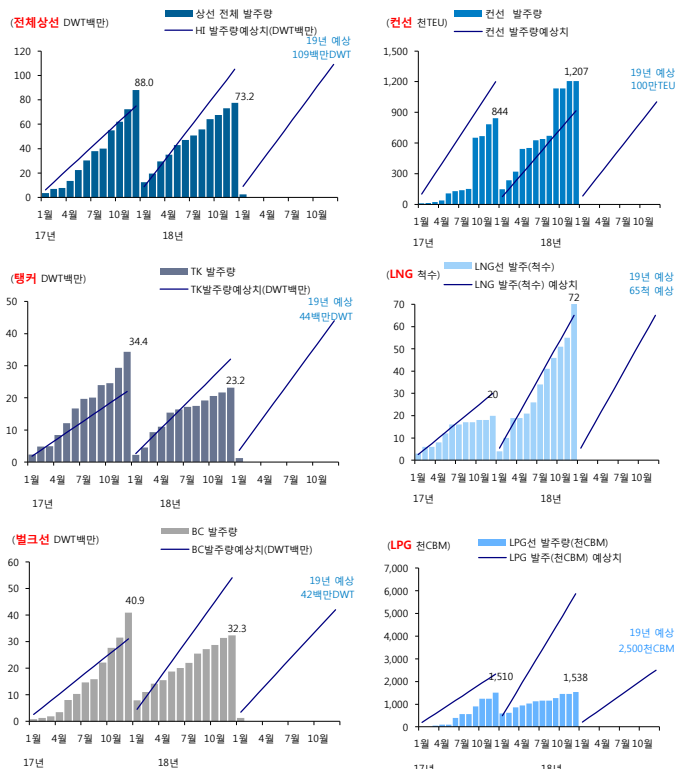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에 일본, 한국이 결합했지만, 결국 현대미포가 최종적으로 남아 협의 중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Onomichi Dockyard, JMU 등은 Tier-III 스펙에 따라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함  
 ExxonMobil은 선박을 보유하지 않아 bareboat charter 형태로 발주될 것으로 보임: 2020년말~2021년초 인도  
 MR 물동량은 2017년 3.3%에 비해 2018년 2.3% 성장에 그쳤지만, 해체는 2018년 20척으로 2017년의 16척에 비해 많은  
 또한 IMO 황산화물 규제 실시가 2020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저유황유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새로운 MR 탱커에 대한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보임  
 위의 Meiji와 합쳐서, 연초 미포는 6척의 MR을 수주하면서 시작합니다.

### ▲ 대우조선해양, Sinokor와 Oman Shipping으로부터 각 4척, 2척+2 총 6척 수주

Sinokor는 2021년 인도로 320k-DWT VLCC 4척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  
 또한 Oman Shipping도 2021년 인도의 VLCC 2척을 계약하고, 옵션 2척도 발주  
 옵션까지 행사될 경우, 이번 수주로 DSME는 수주목표의 10%에 달하는 물량을 확보하게 됨  
 다만 신조선가는 \$91.25m으로 클락슨의 \$92.5m보다 낮음  
 Oman Shipping: 현재 40척(20억\$)의 선대 중 VLCC는 16척  
 10년전 VLCC 10척을 발주해, HHI와 DSME가 각각 5척씩 수주한 바 있음: 그 이후 10년만의 탱커 발주  
 당시 DSME에 발주한 5척 중 마지막 1척은 LNG선으로 계약변경한 바 있음  
 Sinokor: 대우조선해양과 화해  
 DSME에 4척의 VLCC를 발주했지만 2척이 용선에 실패하자, LNG선 2척으로 계약 변경했는데  
 VLCC 2척을 인도했지만, 이후 LNG선 2척을 계약취소해 둘의 관계는 악화  
 양측의 중재소송이 진행 중이었지만, 올해초 양측 모두 소송을 취하

##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 클락슨 신조 발주: 한/중/일

주석: 클락슨 입력 DATA만 & 해안은 뉴스/공시 기준

국가	조선사	계약일	발주 국가	발주처	선종	크기	인도	척수	
<b>18년12월3주</b>									
BIG6	Hyundai Mipo	18.12.27	Unknown	Unknown	PTK	25k DWT	2020	6	
	Samsung HI	18.12.24	유럽	GasLog	LNG	174k cu.m.	2021	2	
		18.12.19	Unknown	Unknown	LNG	174k cu.m.	2021	1	
	Hyundai Samho HI	18.11.1	유럽	Cardiff Marine	LNG	174k cu.m.	2021	2	
	Daewoo (DSME)	18.12.18	Unknown	Unknown	LNG	174k cu.m.	2021	2	
한국	Hyundai HI (Ulsan)	18.10.8	Unknown	Unknown	LPG	80k cu.m.	2020	2	
	Daehan Shipbuilding	18.12.19	유럽	Enesol SA	TK	158k DWT	2020	2	
중국	Nantong COSCO KHI	18.9.1	Unknown	Kumho Nav. Pte. Ltd	BULK	208k DWT	2020	1	
	Wuhu Shipyard	18.12.18	유럽	DorcoStar Roderi	PTK	22k DWT	2021	2	
	Dalian COSCO KHI	18.9.1	Unknown	Unknown	BULK	61k DWT	2020	1	
	Yangzi Xinfu S.B.	18.10.1	Unknown	Unknown	BULK	208k DWT	2021	2	
	Taizhou Kouan SB	18.12.26	중국	Shanghai Ganglu	BULK	56k DWT	2020	2	
	Zhoushan Changhong	18.12.19	유럽	Gerchicon	CONT	2k TEU	2020	3	
	New Times SB	18.12.14	한국	Rena Shipping Co	BULK	210k DWT	2020	2	
	GSI Nansha	18.12.13	중국	CSC Ningbo Tanker	PTK	50k DWT	2020	2	
	일본	Imabari SB Marugame	18.5.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81k DWT	2020	1
			18.3.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81k DWT	2019	2
Imabari SB Saijo		18.5.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240k DWT	2020	1	
		18.5.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81k DWT	2020	1	
Imabari SB Hiroshima		18.5.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240k DWT	2020	1	
	18.2.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183k DWT	2019	3		
<b>19년01월1주</b>									
BIG6	Daewoo (DSME)	18.12.27	유럽	Alpha Gas	LNG	174k cu.m.	2021	1	
		18.12.14	Unknown	Unknown	LNG	173k cu.m.	2021	1	
중국	Jiangnan SY Group	18.12.30	중국	Hang SW Marine	LPG	86k cu.m.	2021	1	
		18.12.28	아시아	Evergreen Marine	CONT	3k TEU	2021	4	
중국	CSC Jiangdong	18.12.28	중국	Shanghai Haiyong Ship	BULK	13k DWT	2020	4	
<b>19년01월2주</b>									
BIG6	Samsung HI	18.12.28	Unknown	Unknown	LNG	174k cu.m.	2021	1	
한국	Daehan Shipbuilding	18.9.28	유럽	Wan Yamen Ship	TK	158k DWT	2020	2	
	Samkang M&T	18.12.31	한국	Hindong Shipping	PTK	4k DWT	2020	1	
민영	Guangzhou Yamen	18.1.24	아시아	Chimbuoco Pan	PTK	0k DWT	2018	1	
	Jiangsu Zhenjiang SY	18.10.1	유럽	UWL	해양설치	0k Deck mm^2	2019	1	
일본	Imabari SB Saijo	18.10.1	유럽	Naxos Acquisition	TK	311k DWT	2021	2	
	Kawasaki HI Sakaide	18.12.1	아시아	Wanau Marine Group	BULK	61k DWT	2021	1	
	Honda HI	18.7.1	일본	Unknown Japanese	CONT	0k TEU	2019	1	
	Honda HI	18.2.1	일본	Unknown Japanese	CONT	0k TEU	2019	1	
<b>19년01월3주</b>									
BIG6	Hyundai Mipo	18.11.26	아프리카	United Ship Owners	PTK	50k DWT	2020	4	
	Daewoo (DSME)	19.1.11	Unknown	Unknown	TK	300k DWT	2020~2021	4	
국영	Dalian Shipbuilding	19.1.15	중국	AVC Leasing	BULK	85k DWT	2021	10	
	CSSC Guangxi	19.1.13	중국	Hanan Zhaogang	LPG	5k cu.m.	2020	1	
민영	Beihai Shipyard	19.1.10	중국	Shandong Shipping	BULK	210k DWT	2021	2	
		18.12.1	아시아	Wah Kwong Ship	BULK	82k DWT	2021	2	
			북미	Dole Fresh Fruit	CONT	2k TEU	2021	2	
		18.11.1	유럽	Standoff Carriers	BULK	22k DWT	2021	1	
			북미	Mbau-Sterna Ship	BULK	40k DWT	2020	1	
		북미	Foamost Maritime	BULK	85k DWT	2021	2		



## 국내 보도

### ▶ 국내 수주

#### ▷ 대우조선해양, 울 첫 일감 '초대형 원유운반선 4척' 수주 "4000억 규모"

<https://bit.ly/2ARUfha>

대우조선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VLCC 4척을 수주했다고 14일 밝힘  
계약금액은 4095억원  
해당 선박은 오는 2021년 2월 말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

#### ▷ 대우조선해양, 초대형원유운반선 2척 추가 수주

<https://bit.ly/2Mi0rTJ>

대우조선은 오만 국영선사(OSC)와 VLCC 2척에 대한 수주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힘  
이들 선박은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되며 오는 2020년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  
특히 이번 계약은 옵션수량 1척 포함돼 있어 조만간 추가 수주도 기대  
이번에 수주한 30만톤급 초대형원유운반선은 길이 336미터, 너비 60미터 규모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기준에 충족하는 친환경 선박으로 고효율 엔진과 최신 연료절감 기술 등 대우조선의 최신기술이 적용될 예정

### ▶ 공통 보도

#### ▷ 조선3사, 러시아 쇄빙 LNG운반선 대량 발주 놓고 수주전 각오

<https://bit.ly/2RRhLVk>

15일 조선해운매체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석유회사 노바텍은 최근 러시아 조선소 즈베즈다와 쇄빙 LNG운반선 14척의 건조에 관한 예비계약을 맺음  
계약규모는 모두 44억5천만 달러  
현재 노바텍은 주요 선사들과 용선계약 입찰을 진행하는 등 야말 2차프로젝트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음  
노바텍이 즈베즈다에 발주를 확정하면 다시 즈베즈다가 파트너 조선사에게 물량 일부를 하청주는 형식으로 계약이 이뤄질 것  
조선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 조선3사와 중국 조선사들이 즈베즈다로부터 수주를 따내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마 즈베즈다가 올해 안까지 파트너를 정해 내년에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전망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즈베즈다가 파트너사와 배를 나눠 건조할 것이라는 점은 사실상 확실하다"며  
"하지만 물량을 한 조선소에 몰아줄지, 여러 조선소에 분배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

#### ▷ 수주 낭보 조선업계, '해양플랜트'도 다시 한 번

<https://bit.ly/2T4wpFZ>

조선업계가 새해 첫 수주 낭보를 전하며 수주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부진했던 해양플랜트 수주에도 공을 들이고 있음  
1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16일 유럽지역 선사로부터 1550억원 규모의 15만8000t급 원유운반선 2척을 수주하며 새해 첫 수주에 성공  
대우조선해양 역시 이번 주에만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6척, 약 5.5억 달러 상당의 선박을 수주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발주량은 지난해(2859만 CGT) 대비 20% 이상 상승한 3440만 CGT로 전망  
글로벌 발주량은 향후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유지해 2023년에는 4740만 CGT에 이를 것으로 기대  
업계에서 올해 기대하는 해양플랜트 수주는 인도 릴라이언스의 MJ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베트남 블록B 플랫폼 프로젝트, 북해 해상유전 로즈뱅크 프로젝트, 호주 바로사 FPSO, 나이지리아 봉가 사우스웨스트 프로젝트 등  
당초 지난해 발표가 예상됐던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올해로 연기  
해양플랜트 경협이 풍부한 삼성중공업은 올 상반기 인도 릴라이언스의 FPSO 입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르면 올 1분기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  
이외에도 베트남 블록 B 플랫폼, 호주 바로사 FPSO 등의 입찰에 참여  
현대중공업은 베트남 블록B 플랫폼과 사우디아라비아 마르잔 프로젝트 입찰에 뛰어듬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는 마르잔 유전개발 프로젝트 발주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은 이탈리아 사이렘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전도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미뤄진 북해 로즈뱅크 프로젝트 수주전에 참여  
당초 싱가포르 셉코프마린과 최종 경합을 벌였지만 발주처인 미국 석유회사 셰브론이 로즈뱅크 프로젝트를 지분을 에퀴노르에 매각하면서 입찰결과가 미뤄진  
최근 지분매각은 마무리됐지만 에퀴노르가 입찰 자체를 처음부터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

### ▶ 현대중공업 보도

#### ▷ 현대삼호중공업 올해 첫 선박명명식

<https://bit.ly/2FCyCFv>

현대삼호중공업 이상균 사장과 싱가포르 선택사의 사주인 파이퀘렝썬 등 관계자들이 18일 전남 영암 삼호읍에 자리한 조선소에서  
적재중량 30만톤급 원유운반선인 '퍼시픽 엠'호의 명명식을 가짐  
이날 명명식은 현대삼호중공업의 올해 첫 명명식

#### ▷ 현대중공업그룹, 1550억원 규모 원유운반선 2척 수주

<https://bit.ly/2QXKB1D>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16일 유럽지역 선사로부터 1550억원 규모의 15만8000톤 급 원유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힘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274m, 폭 48m로,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2020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계획  
현대중공업그룹은 올해 조선부문 수주목표를 지난해 대비 21% 높은 159억불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본격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든 상황을 적극 반영해 수립한 계획



▷ 현대중공업, 머스크로부터 300억 규모 컨테이너선 수리 수주

<https://bit.ly/2R2E45M>

머스크는 15일 현대중공업에 1만5262TEU급 컨테이너선 '머스크호남'의 재건조를 맡기로 했다고 조선해운매체 트레이드윈즈를 통해 밝혔  
트레이드윈즈는 수리비용이 3천만 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정  
이 배는 2018년 3월 중동 오만 인근을 운항하다가 화물칸에서 불이 나면서 손상  
머스크는 기관실과 주요 추진 및 기계구성 요소 등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선박을 재건하기로 결정  
현재 배는 수리를 위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대중공업은 사운드 파트(배의 중앙부에서 선미 부분)의 재건조를 맡음  
머스크호남을 실은 배는 2월 현대중공업으로 출발해 3월 도착  
머스크는 머스크호남이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운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삼성중공업 보도

N/A

▶ 대우조선해양 보도

▷ '분위기 쇠신' 나선 대우조선해양, 부서장급 보임자 35% 교체 선정

<https://bit.ly/2szlgaZ>

15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지난 14일 169명의 부서장급 보임자중 59명을 신규선임 및 순환시키는 대규모 부서장급 보임인사를 단행  
59명 중 43명이 신임 부서장으로 선임됐고, 16명의 부서장이 새로운 보직을 맡게 됨  
전체 부서장급 보임자의 35%가 이번에 교체 또는 변경된 것  
대우조선은 기존 하향식으로만 이뤄지던 보임자 선정 관행을 파괴하고,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별도의 전사혁신추진 TFT를 구성해 직원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실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아울러 외부의 다양한 인사제도를 검토하고, 이중 회사에 적용 가능한 기준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번 인사에 직원들이 바라는 리더상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중 소형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

▷ 한진중 수빅조선소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

<https://bit.ly/2FJ8AzA>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울롱가포 법원이 자회사인 수빅조선소(HHIC-Phil)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15일 공시  
현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부산지역 조선기자재업체의 물품 대금 회수 길도 열릴 것으로 보임  
수빅조선소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는 부산지역 159개사와 경남지역 80개사를 포함해 모두 284개사  
미지급 물품 대금 규모는 7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한진중공업은 파악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필리핀 현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

▷ HSD엔진 신용등급 BBB-/부정적 '하향'...'수익성 개선 어려워'

<https://bit.ly/2Cv22Sa>

나이신용평가는 18일 에이치에스디엔진의 기업신용등급을 BBB-/부정적에서 BBB-/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담보부사채 역시 BBB+/부정적에서 BBB/부정적으로 조정  
나신평은 등급 하향과 관련 △매출감소 및 저조한 영업수익성 지속  
△향후 수익성 및 이익창출력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저하된 재무안정성 개선 지연 전망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

▷ 중소선사 지원 'S&LB' 사업...올해 3000억원 투입

<https://bit.ly/2R4ECZa>

정부가 올해 총 3000억원의 '선박 매입 후 재용선(S&LB-Sales & Lease Back)' 사업을 추진  
중소선사 유동성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2019년 1차 S&LB 프로그램'의 접수 결과 총 11개사에서 18척(총 3415억원)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  
선박 종류별로는 컨테이너선 2개사 2척, 탱커선 6개사 10척, 벌크선 3개사 3척, 자동차선 1개사 3척 등  
S&LB 사업은 선사가 보유한 선박을 매입한 뒤 선사에게 재임대하는 것으로 선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중소선사들은 보다 낮은 용선료로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차입금 만기 연장 부담도 덜 수 있음  
또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선사들은 할감에 선박을 매각하지 않고 기존 영업을 그대로 진행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선사들의 만족도가 높음  
해수부와 공사는 2월까지 세부 검토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상세 계약 조건을 협의해 3월 부터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계획

▷ 성동조선해양 두번째 매각에 3곳 참여. 매각 급물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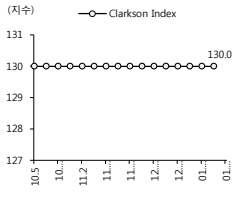
<https://bit.ly/2RBK1fe>

법정관리 중인 국내 대표적 중견조선사인 경남 통영의 성동조선해양 2차 매각에 3곳이 인수제안서를 제출  
지난해 10월 진행된 1차 매각 때는 인수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아 불발  
창원지법 파산부는 지난 16일 오후 3시 마감한 성동조선해양 2차 매각 입찰에 복수 업체가 인수제안서를 넣었다고 17일 밝혔  
조선업계에서는 법인, 컨소시엄, 재무적 투자자를 포함해 3곳이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  
법원은 인수제안서에 제출한 입찰금액, 사업계획, 고용유지 의지 등을 검토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가릴 계획  
이후 실사 등을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  
빠르면 내달 중 본 계약이 이뤄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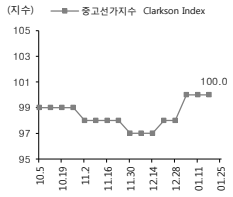


##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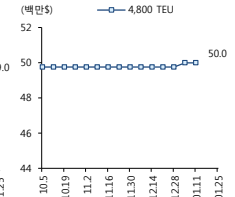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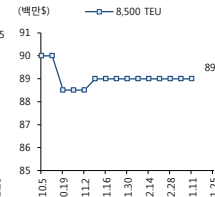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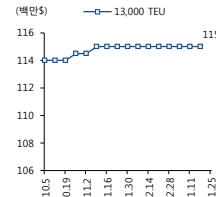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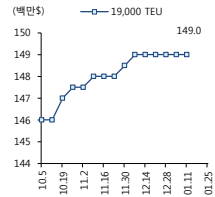
### ▶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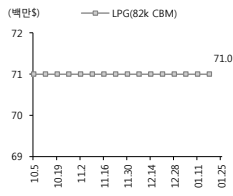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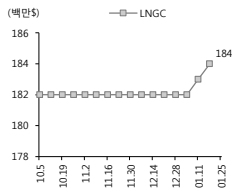
### ▶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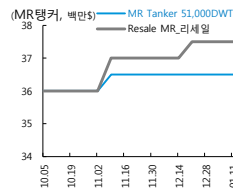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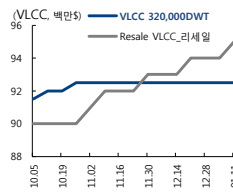
### ▶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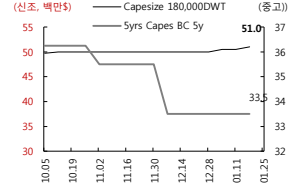
### ▶ 가스선들



### ▶ 탱커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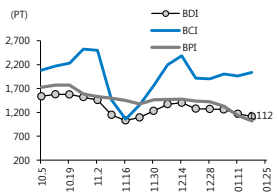


### ▶ 벌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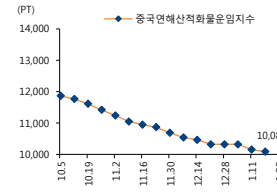


##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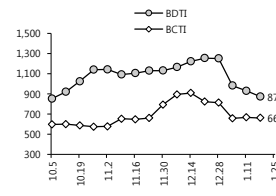
###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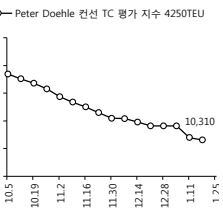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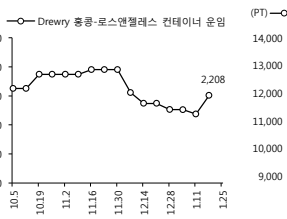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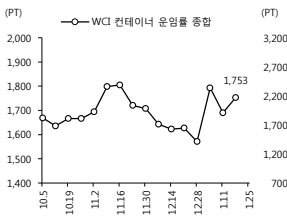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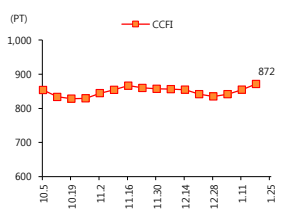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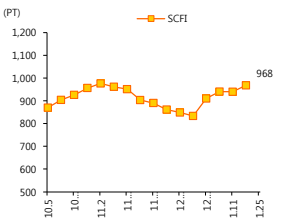
### ▶ 중국



### ▶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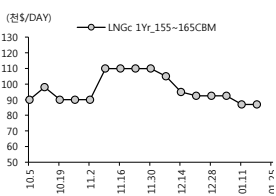


###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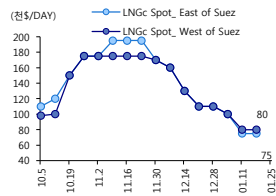


##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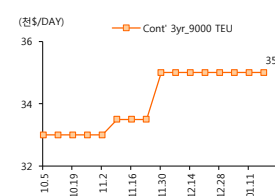
### ▶ LNG선 동선료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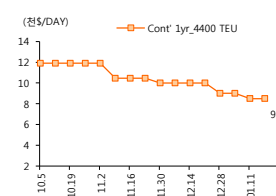
### ▶ LNG선 SPOT 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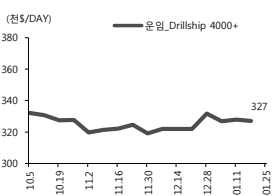
###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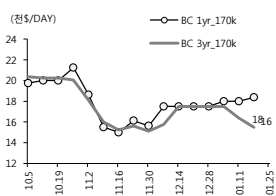
### ▶ 탱커 - VL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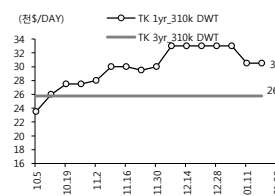
### ▶ 드릴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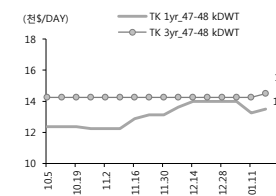
### ▶ 벌크 - 케이프



### ▶ 탱커 - VLCC



### ▶ 탱커 - MR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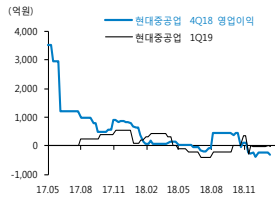


# 비 중공업 Fla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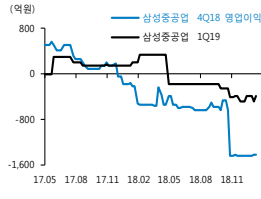


##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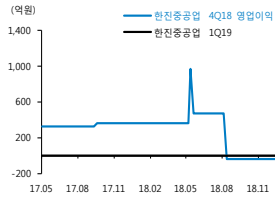
### ▶ 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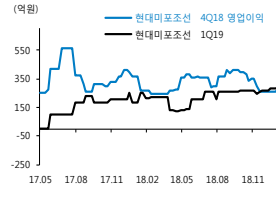
### ▶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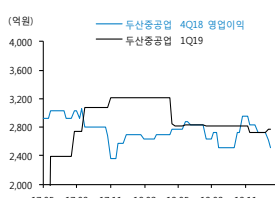
### ▶ 한진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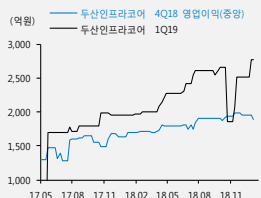
### ▶ 현대미포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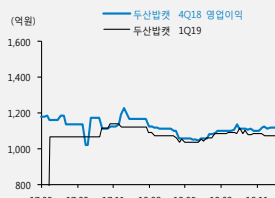
### ▶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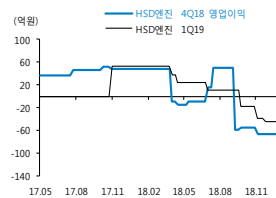
### ▶ 두산인프라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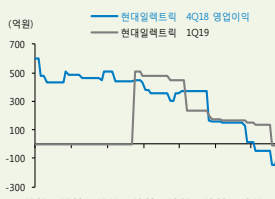
### ▶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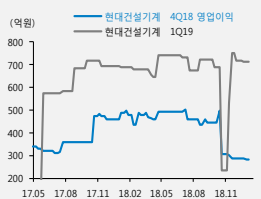
### ▶ HSD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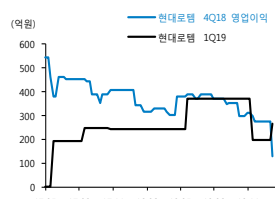
### ▶ 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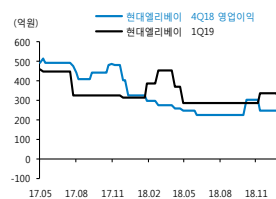
### ▶ 현대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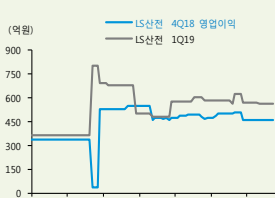
###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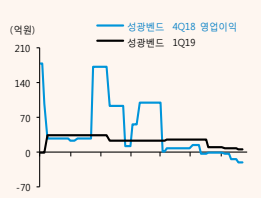
### ▶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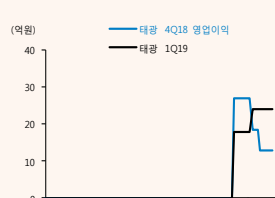
### ▶ LS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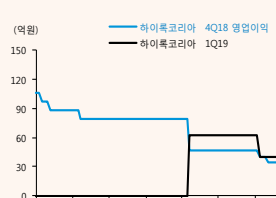
### ▶ 성광벤드



### ▶ 태광



### ▶ 하이록코리아



출처: Dataguide

### ▶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18 EPS(원)										Chang(%)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8.12.22	18.12.29	19.01.05	19.01.12	19.01.18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2018 PER	증가		
조선	현대중공업	-4,010	-4,200	-4,964	-5,055	-2,311	-2,311	-2,201	-2,451	-2,437	적지	적지	-57.2	139,500		
	삼성중공업	-446	-452	-494	-691	-696	-696	-628	-627	-624	적지	적지	-12.2	7,610		
	현대미포조선	6,491	6,450	5,785	5,845	2,993	2,993	2,993	3,007	3,054	-48%	2%	21.1	64,400		
	한진중공업	-132	-551	-1,206	-1,206	-1,206	-1,206	-1,206	-1,206	-1,206	적지	적지	-1.0	1,185		
두산	두산중공업	476	425	112	32	-243	-243	-235	-215	-254	적진	적지	-42.6	10,800		
	두산인프라코어	1,560	1,574	1,587	1,498	1,463	1,463	1,486	1,460	1,460	-3%	0%	5.8	8,500		
기계	HSD엔진	-218	-340	-462	-394	-404	-404	-595	-595	-657	적지	적지	-8.6	5,650		
	현대건설기계	12,639	12,512	12,248	8,888	4,256	4,256	4,255	4,117	4,117	-54%	-3%	12.6	51,700		
	현대일렉트릭	1,327	1,157	1,156	-7,014	-3,953	-3,953	-4,554	-4,554	-4,510	적지	적지	-5.3	24,100		
	LS산전	5,105	5,253	5,204	4,996	4,950	4,950	4,950	4,964	4,964	-1%	0%	10.8	53,700		
	현대엘리베이터	1,915	1,620	1,620	847	-77	-77	-77	-77	-77	적진	적지	-1,487.3	115,000		
방산	현대로템	359	305	313	-140	-450	-450	-450	-422	-476	적지	적지	-60.3	28,750		
	한국항공우주	1,371	1,185	1,213	968	830	684	604	658	658	-32%	-21%	52.0	34,2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19	679	701	305	317	317	283	283	278	-9%	-12%	110.0	30,600		
피팅	LIG넥스원	2,239	959	959	955	955	955	955	955	955	0%	0%	37.6	35,900		
	성광벤드	-58	-140	-31	-31	-113	-113	-152	-152	-152	적지	적지	-72.0	10,950		
	태광	302	302	483	483	399	399	399	399	399	-17%	0%	30.1	12,000		
하이록코리아	하이록코리아	1,550	1,102	1,102	1,102	957	957	957	957	957	-13%	0%	19.2	18,350		

그룹	종목	2018 BPS(원)										RO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8.12.22	18.12.29	19.01.05	19.01.12	19.01.18	2018	2019	2018 PBR		
조선	현대중공업	169,894	173,582	174,458	172,820	168,196	168,196	168,196	168,289	168,289	-1%	-1%	0.8		
	삼성중공업	12,234	12,396	12,306	12,222	12,211	12,211	12,211	12,212	12,216	-5%	-1%	0.6		
	현대미포조선	116,627	116,381	115,775	116,064	58,180	58,180	58,180	58,201	58,186	5%	4%	1.1		
	한진중공업	5,338	4,514	3,676	3,676	3,676	3,676	3,676	3,676	3,676	-33%	-77%	0.3		
두산	두산중공업	28,242	28,596	27,644	28,102	28,057	28,057	28,057	28,077	28,686	-1%	2%	0.4		
	두산인프라코어	9,589	9,703	9,872	10,250	9,872	9,872	9,674	9,698	9,516	15%	15%	0.9		
기계	HSD엔진	11,040	6,177	6,471	6,571	6,748	6,748	6,748	6,748	6,687	-10%	-7%	0.8		
	현대건설기계	132,950	132,950	132,530	129,596	64,830	64,830	64,830	65,079	64,871	6%	8%	0.8		
	현대일렉트릭	105,268	104,837	104,837	92,618	47,307	47,307	47,307	47,307	47,877	-9%	2%	0.5		
	LS산전	42,969	43,088	43,088	43,060	42,979	42,979	42,936	42,948	42,948	12%	12%	0.0		
	현대엘리베이터	41,903	41,903	41,903	42,087	36,066	36,066	36,066	36,066	36,066	0%	9%	3.2		
방산	현대로템	16,129	16,051	16,021	15,669	15,257	15,257	15,257	15,302	15,302	-3%	4%	1.9		
	한국항공우주	11,856	11,585	11,566	10,998	11,111	11,042	10,965	10,965	10,948	6%	12%	3.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1,143	41,139	41,496	41,621	43,966	43,966	43,919	43,919	44,508	1%	3%	0.7		
피팅	LIG넥스원	28,924	27,573	27,573	27,409	27,409	27,409	27,409	27,409	27,409	3%	6%	1.3		
	성광벤드	15,988	15,838	16,009	16,009	15,904	15,904	15,838	15,838	15,838	-1%	1%	0.7		
	태광	17,110	17,110	16,669	16,669	16,507	16,507	16,507	16,507	16,507	2%	2%	0.7		
하이록코리아	하이록코리아	25,079	24,755	24,755	24,458	24,792	24,792	24,792	24,792	24,792	4%	5%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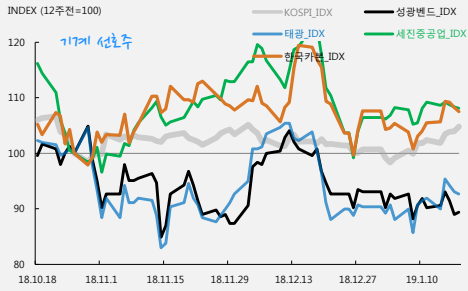
출처: Data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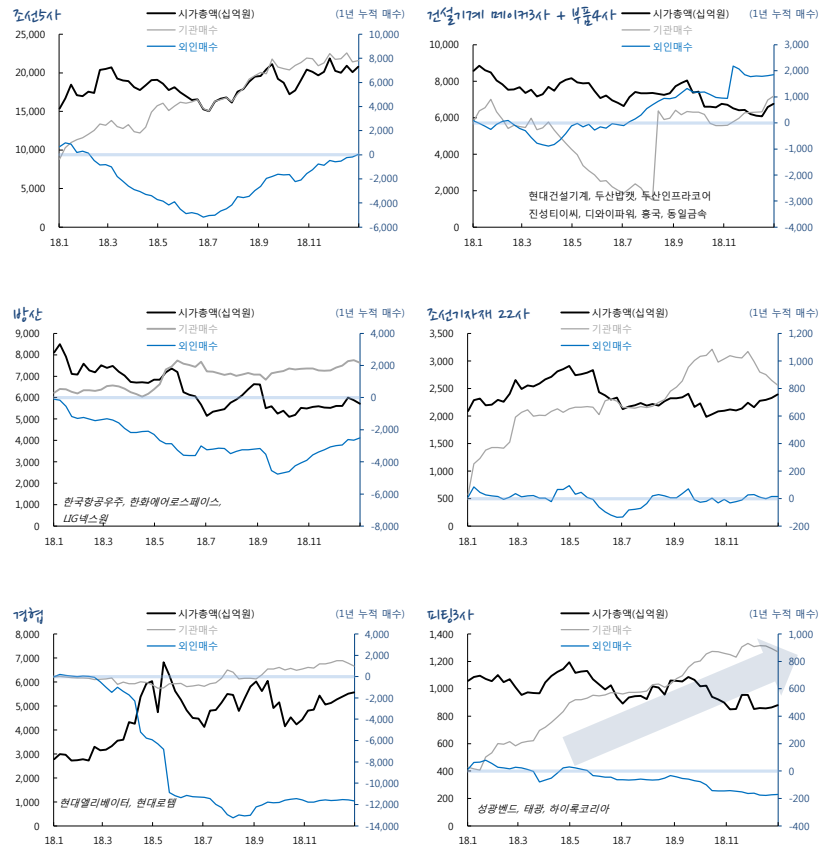
##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 ▶ 당사 기계 선호주



##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 ▶ 기관, 외인 누적 매수





## 기계 업종 뉴스

### 건설기계

#### ▷ 中굴착기 시장 호조... 두산·현대 올해도 기대

<https://bit.ly/2TS9Zl9>

14일 중국공정기계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내 굴착기 판매량은 18만4190대로 전년(13만559대)보다 41.1% 증가

지난 2011년 17만1894대를 기록한 이후 역대 최대치

2011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불황이 지속돼 온 중국 굴착기 시장은 2016년 이후 중국의 인프라투자가 본격화하며 수요가 급증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정책으로 인한 인프라투자 확대로 중국 내 건설장비 수요는 크게 늘

중국 내 굴착기 세계 최대 시장으로, 지난 2016년 6만2913대였던 중국 굴착기 판매량은 2017년 13만583대, 2018년 18만4190대로 급증세

지난해보다 중국 내 판매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업체는 맞춤형 제품 판매와 영업력 강화를 통해 중국 내 굴착기 판매 감소에 대비한다는 전략 두산인프라코어는 특수장비 판매를 늘려 신시장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

이를 위해 지난 8월 중국 정위중공에 향후 5년 간 상부체 1200대를 공급하는 업무협약(MOU)을 맺기도

중국 내 시장점유율이 낮은 현대건설기계는 빠르게 성장 중인 인도-베트남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

이를 위해 올해 인도 푸네공장 생산능력을 1만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

또 베트남 내 지사 개선을 통해 새 시장 개척에 나선다는 방침

#### ▷ 두산인프라코어, 500억 회사채 발행해 차입구조 개선

<https://bit.ly/2RrtXN3>

두산인프라코어가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해 회사채를 발행

신용등급이 BBB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꾸준하게 회사채 투자 수요를 모음

두산인프라코어는 오는 24일 회사채 500억원어치를 발행할 계획

키움증권, KB증권, DB금융투자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오는 16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회사채 만기는 2년으로 2021년 1월에 만기 도래

두산인프라코어는 조달한 자금으로 1분기에 상환 또는 차환해야 하는 단기차입금을 상환하기로

이달 31일과 3월 11일 사이에 약 510억원의 기업어음(CP) 만기가 대기

### 큰 기계

#### ▷ 한수원, '원자력 협력사 간담회'...원전산업계 지원 방안 마련

<https://bit.ly/2RtHuvj9>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기업지원센터는 15일 창원 풀만 엠베서더 호텔에서

경남지역 원자력 주요기기 공급 협력사와 경남도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사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정 사장은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듣고, 기술인력, 판로, 금융, 연구개발 등의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

간담회에 참석한 협력사 대표들은 해외 원전수출 시장 환경 조성, 공급자 등록제도 개선,

금융, 기자재 해외수출, 인력 유출 방지 및 교육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다양한 목소리를 냄

한수원과 원전기업지원센터는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협력업체 지원방안, 핵심인력 유지방안 등을 함께 모색할 예정



## 글로벌 피어그룹 추가 흐름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추가	1Y	3Y
인프라: 건설기계 / 부품								
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1,822	0.0%	24.7%	-13.8%		-48%	
	두산인프라코어	3,280	4.4%	7.9%	-5.3%		-24%	
대형	두산밥캅	3,280	3.2%	2.6%	-10.8%		-5%	
	CATERPILLAR	88,596	3.4%	11.7%	-3.9%		-20%	124%
	KOMATSU	28,397	5.5%	8.5%	-16.6%		-37%	57%
	HITACHI CM	6,748	6.1%	3.3%	-24.6%		-38%	59%
	VOLVO	37,036	3.6%	5.5%	-12.8%		-24%	59%
중국	SANY	9,741	5.5%	0.8%	4.3%		-9%	59%
	XCMG	4,493	0.6%	-2.1%	-5.2%		-29%	-1%
소형	DEERE	47,942	4.0%	12.7%	10.9%		-3%	121%
	CNHI	16,348	5.9%	12.8%	-7.7%		-31%	70%
	TAKEUCHI	1,317	4.5%	2.9%	-22.8%		-34%	3%
	TEREX	2,994	3.7%	15.6%	-15.1%		-38%	99%
건설기계 부품	디와이파워	167	1.8%	17.7%	17.3%		-28%	211%
	진성티아서	174	2.7%	13.7%	5.7%		-35%	74%
	우림기계	56	6.7%	18.9%	8.6%		3%	24%
	흥국	59	-3.1%	-15.3%	37.6%		45%	208%
	동일금속	67	0.0%	-0.9%	-0.5%		27%	21%
	KUBOTA	20,295	4.6%	-1.9%	-9.0%		-27%	4%
	가야바	1,045	3.5%	9.9%	-35.8%		-57%	-11%
Hengli	2,806	10.0%	11.0%	8.6%		1%	179%	

방위산업 / 항공부품								
항공	한국항공우주	3,945	1.8%	7.7%	8.9%		-35%	-4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12	-6.7%	-6.0%	10.7%		-8%	-3%
방산	LIG넥스원	212	-11.9%	6.4%	6.2%		-34%	-69%
	아스트	212	-7.8%	11.2%	-0.8%		-48%	-43%
	Boeing	208,880	3.4%	14.1%	1.3%		8%	193%
	LOCKHEED MARTIN CORP	97,743	1.9%	3.3%	-13.7%		-15%	33%
	Northrop grumann	55,307	4.6%	5.7%	-11.4%		-15%	45%
	EADS	95,076	5.2%	8.8%	-8.7%		-7%	172%
	BOMBARDIER	8,437	-2.5%	13.2%	-48.2%		-36%	107%
	EMBRAER	3,497	-9.5%	-1.2%	9.4%		-15%	-23%
	ROLLS ROYCE	24,242	2.8%	9.1%	2.2%		0%	65%
	ROCKWELL COLLINS	23,154	0.0%	0.0%	5.0%		2%	167%
	HARRIS CORPORATION	19,745	4.3%	3.1%	-7.8%		-2%	170%
	GENERAL DYNAMICS	60,622	2.9%	6.0%	-12.1%		-19%	33%
	SAFRAN	61,753	4.3%	3.5%	1.1%		21%	88%
	SPIRIT AERO	9,621	2.3%	11.8%	-5.2%		-19%	178%
	TRIUMPH	1,161	2.7%	12.8%	-23.8%		-51%	-56%

공작기계 / 기타 철								
공작기계	화천기계	94	2.5%	0.2%	-6.3%		-25%	-20%
	와이지원	307	5.3%	6.5%	-7.1%		-46%	-7%
기타	신진에스엠	55	-0.2%	3.9%	-9.3%		-35%	-59%
	S&T중공업	197	4.2%	4.3%	15.4%		-3%	-43%
	Shenyang	813	32.5%	33.1%	20.7%		-16%	-54%
	Amada	3,927	5.0%	4.1%	-1.6%		-35%	0%
	Moriseiki	2,092	6.3%	4.3%	-20.2%		-48%	21%
	Jtekt	4,983	5.9%	6.3%	-14.3%		-32%	-25%
	Okuma	1,862	4.6%	6.5%	-11.9%		-32%	23%
	Makino	1,081	8.4%	7.5%	-3.6%		-31%	458%
	Schuler	1,082	-1.3%	1.4%	-1.3%		-13%	11%
	Gildemeister	4,124	-0.8%	2.1%	0.3%		-8%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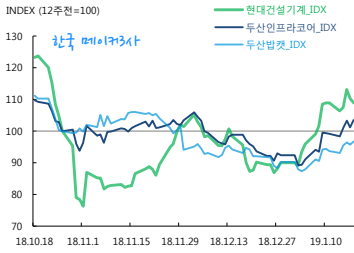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추가	1Y	3Y	
에너지: 피팅 / 발전 / 중전기 / 풍력									
피팅	성광벤드	325	0.9%	7.6%	-4.1%		-6%	33%	
	태광	341	0.8%	4.0%	-1.8%		-15%	46%	
발전	하이록코리아	286	7.0%	3.7%	-6.6%		-29%	28%	
	두산중공업	1,561	5.9%	6.1%	-4.3%		-31%	30%	
	비에이치아이	89	1.7%	2.8%	-2.1%		-17%	41%	
	S&TC	100	5.7%	12.8%	-1.6%		-21%	52%	
	DONGFANG	3,299	-0.1%	10.4%	2.6%		-22%	27%	
	BHEL	3,761	3.1%	1.0%	-5.6%		-27%	28%	
	MHI	12,498	2.4%	1.8%	1.6%		0%	-7%	
	IHI	6,105	7.4%	0.7%	-1.0%		11%	31%	
	SIEMENS	108,438	2.8%	2.0%	0.3%		-19%	19%	
	General Electric	110,029	1.3%	18.3%	-6.5%		-44%	68%	
	ALSTOM	10,311	2.1%	7.9%	-6.4%		-6%	36%	
	중전기	LS산전	2,059	4.5%	3.4%	-5.7%		-20%	37%
		효성중공업	594	10.7%	1.0%	-3.2%		58%	
현대엘렉트릭		570	0.0%	0.8%	-9.3%		58%		
ABB		52,239	0.8%	-0.3%	8.7%		-29%	15%	
Schneider		46,621	2.3%	0.1%	2.6%		-20%	23%	
WEG		9,660	0.1%	3.4%	1.5%		-6%	65%	
Crompton Greaves		1,918	0.4%	0.3%	10.6%		13%		
TBEA		3,795	2.2%	5.0%	10.6%		-28%	22%	
풍력		씨에스윈드	495	4.2%	0.9%	-5.3%		-13%	33%
		유니슨	179	5.6%	3.5%	-3.4%		-62%	8%
	동국S&C	212	14.4%	3.0%	4.4%		-46%	24%	
	태웅	256	13.4%	10.1%	5.4%		-47%	13%	
	VESTAS	13,561	2.8%	3.0%	23.8%		-20%	21%	
GOLDWIND	5,672	4.2%	7.2%	15.4%		-40%	17%		
NORDEX	1,051	7.7%	3.6%	12.2%		-19%	69%		
GOLDWIND	5,672	4.2%	7.2%	15.4%		-40%	17%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 경협									
철도	현대로템	2,285	1.6%	5.5%	9.7%		72%	128%	
	ALSTOM	10,311	-2.1%	-7.9%	-6.4%		-6%	36%	
	안saldo	2,925	-0.2%	0.0%	7.5%		4%	29%	
	Bombardier	8,437	-2.5%	13.2%	-48.2%		-36%	107%	
	CNR	64,357	3.1%	8.2%	-1.1%		8%	55%	
	CAF	1,478	3.7%	5.3%	17.6%		2%	50%	
	CSR	33,804	-3.4%	-1.7%	11.2%		-3%	6%	
	승강기	현대엘리베이터	2,554	0.4%	22.7%	16.2%		108%	142%
		KONE	28,609	1.5%	3.3%	5.8%		-3%	17%
		UTC(OTIS)	111,677	3.6%	0.1%	-12.1%		-16%	32%
SCHINDLER		26,134	1.8%	5.5%	-5.3%		-8%	32%	
THYSSENKRUPP		14,554	-1.2%	0.9%	-20.8%		-39%	5%	
MITSUBISHI ELEC.		29,169	6.9%	4.3%	-6.5%		-39%	19%	
HITACHI	32,140	3.9%	11.3%	-0.8%		-25%	477%		
SHANGHAI ELEC.	9,990	1.5%	4.7%	4.3%		-17%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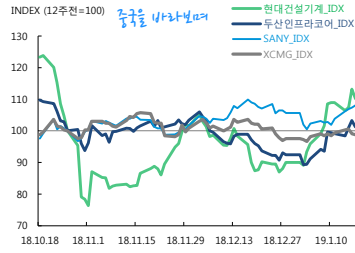


## 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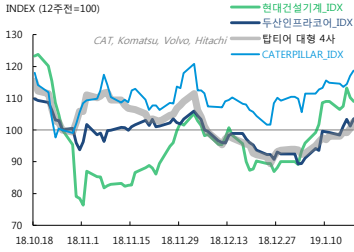
### ▶ 한국의 메이커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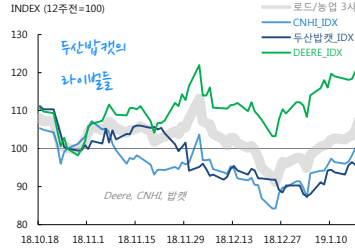
### ▶ 중국 건설장비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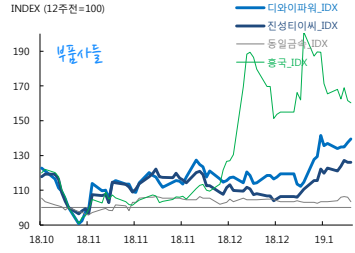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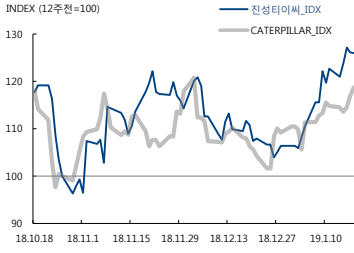
### ▶ 대형: 두산, 현건기, CAT



### ▶ 미니 소형에서 두산뮌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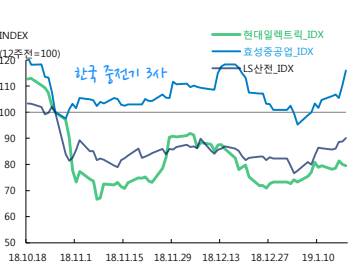


###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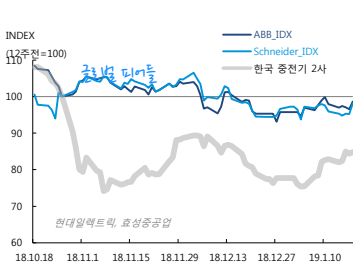


## 중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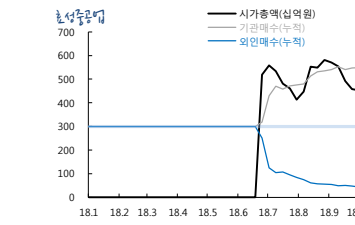
### ▶ 한국 중전기 3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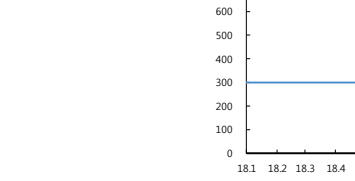
### ▶ 글로벌 피어 2사



### ▶ 호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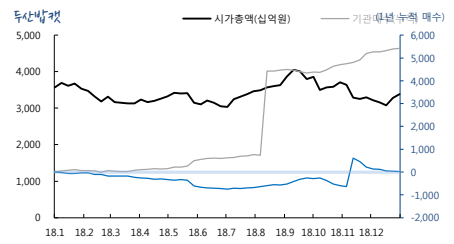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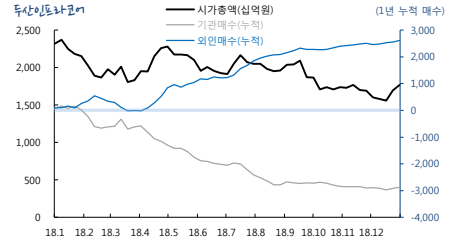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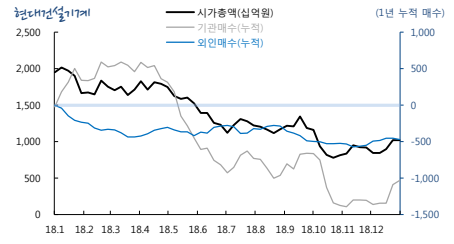
### ▶ LS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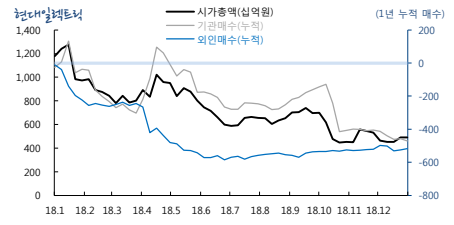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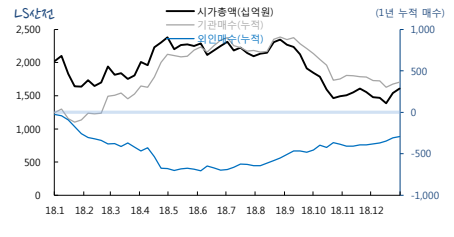
### ▶ 현대일렉트릭



## 건설기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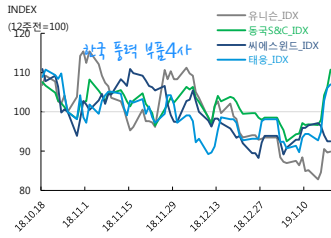
## 중전기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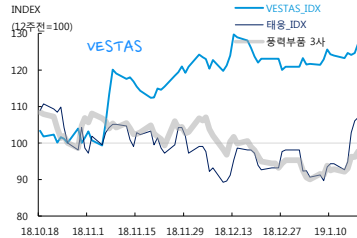


## 풍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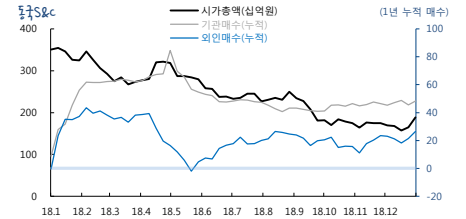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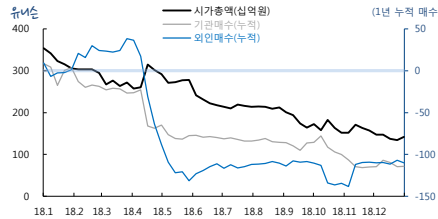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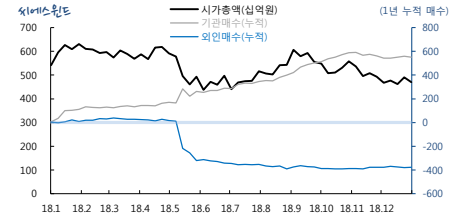
### ▶ 한국 풍력 부품4사



### ▶ 한국 풍력 vs. VEST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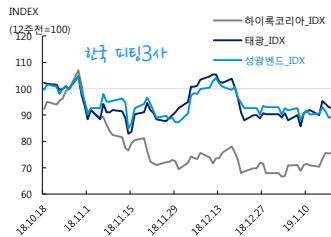


### ▶ 풍력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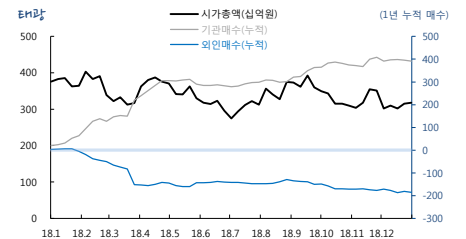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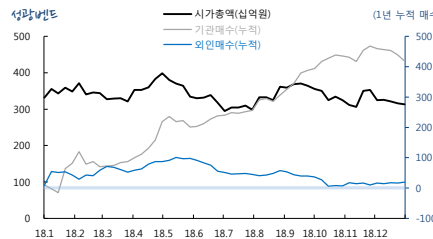


##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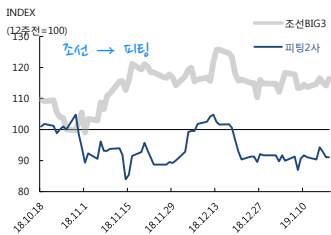
### ▶ 피팅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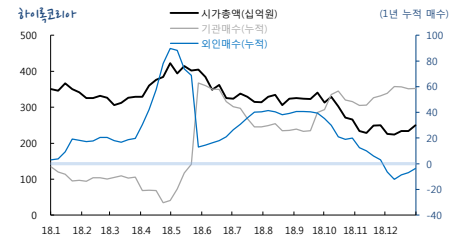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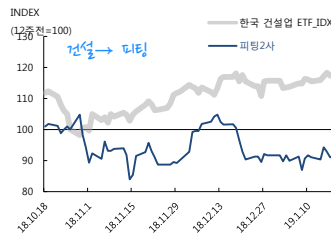
### ▶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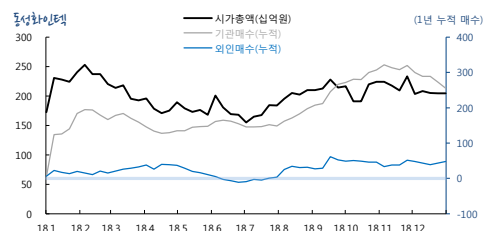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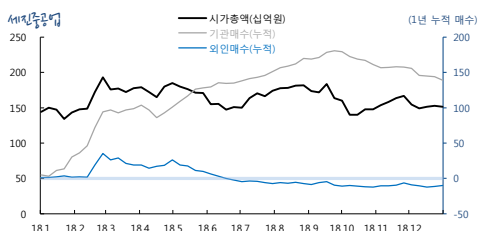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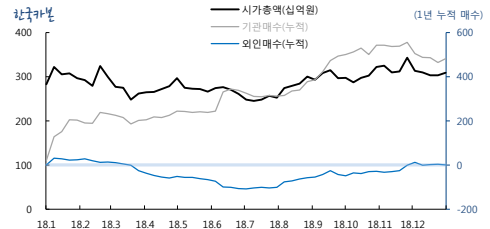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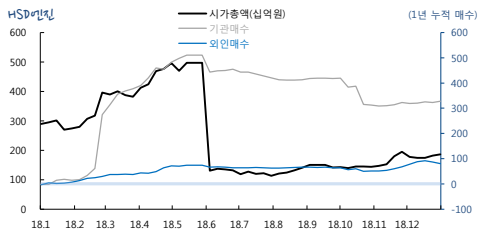
### ▶ 조선 → 피팅2사



### ▶ 건설 → 피팅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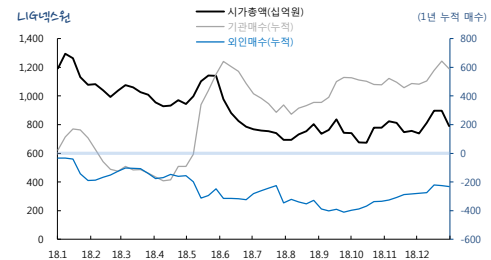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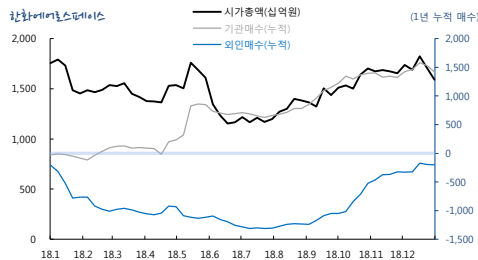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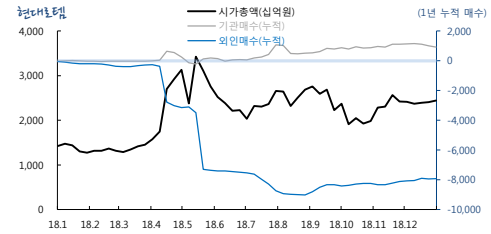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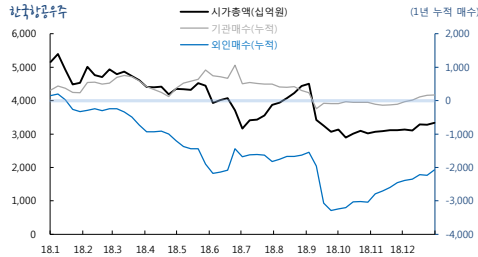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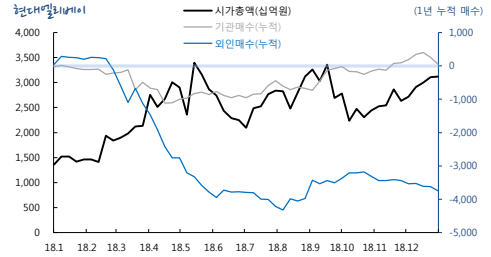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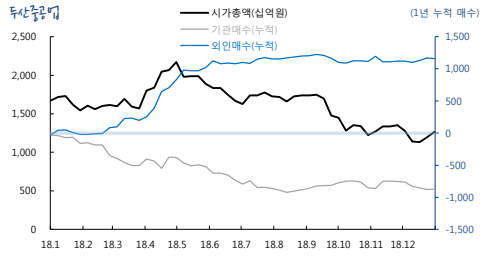


## 조선기자재 수급





## 기타 큰 기계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당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최광식)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 의견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율을 의미함.(2017년7월1일부터 적용)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5% ~ -15% 내외 등락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8-12-31 기준

구분	매수	증립(보유)	매도
투자 의견 비율(%)	90.09%	9.10%	-